



어린이

중학생을

위한

性教育

지침서

# 가르쳐 주세요

(제 7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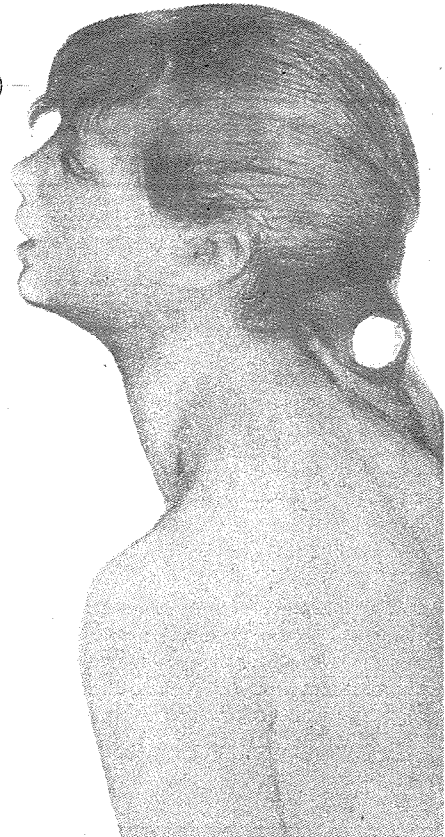
■ 鄭 東 哲

정동철 신경정신과의원장

“가르쳐 주세요”는 정신과 의사인 鄭東哲박사가 계속 집필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박사는 어린 아들·딸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性문제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하나? 를 알기 쉽게 풀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박사와의 상담은 전화 265-6568 정동철신경정신과의원으로 하면됩니다.



## 성적 유희



국민학교 자모를 위한 강연, 청소년을 위한 심야 방송상담, 수다한 여성 또는 건강월간지의 건강상담, 그리고 진료실에서의 개인면담이나 상담에서 많은 어머니들이 제기하는 의문중에 어린이의 성적 유희가 거론되고 있다. 안타깝고 부끄러운 마음을 달래며 정말 어려운 용기로서 시작되는 내용은 솔직히 의외의 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좋지요, 유치원에 다니는 둘째 아이가 꼬추를 갖고 장난을 합니다. 사춘기가 되어 자위행위를 한다는 말은 들었어도 이럴수가 있나요?」

「너무 부끄러워 말을 못하겠군요. 국민학교 2학년의 외아들이 옆집 계집아리와 글썽, 어떡하지요. 어른의 짓을 하여 기겁을 했습니다. 여자아이는 3학년이에요. 야단을 치자니 충격에 더 이상해질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둘 순 없지 않습니까?」

「국민학교 4학년이에요. 밤에 이모방에 가서 몸을 더듬고……, 이모가 야단을 치면 놀랄까봐 저에게

말을 했는데 어쩌해야 될가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속도가 왔었는데 그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이 아니고 상습적으로 그러는 것 같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국민학교 1학년짜리 막내 딸이 팬티를 벗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이상한 아이겠지요?」

이런 식으로 열거하기 시작하면 참으로 많은 얘기가 있다. 거기에 글로 쓰거나 또는 말로 하기에 표현이 부족한 엄청난 것들도 있다. 도대체 어린 아이들에게 성적 유희가 왜 생기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이다. 성적 유희가 있다는 점이 어쩔거나 엄연한 사실인 이상 그렇다면 어떤 아이는 그렇고 또 어떤 아이는 어째서 그렇지 않은 것인가? 성적 유희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그 형태를 구분하여 정상적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병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런 행위는 어떤 연령에 생기며 그 원인은 무엇일까? 어린 아이의 성적 유희는 내버려 두어도 되는 것인가 아닌가? 아니라면 또 어떻게 교정해 주어야 하는가?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에 비해 어떻게해야 할 바를 모르는 마음사이의 고통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고 본다.

여기에 이 많은 의문을 하나씩 생각하며 해답을 구하는 형식을 택할 수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인간의 행

동양식과 성의 발달을 눈여겨 봄으로써 원칙적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겠다.

인간의 행동중에서 본능적 행위가 선천적인가 아니면 후천적 학습효과에 의한 것인가 하는 점을 먼저 검토하자. 본능은 대체로 선천적이라고 알려져 왔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우선 먹어야 한다는 것과 종족 보존을 위해 생식(生殖)을 해야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서 하는 행동이 아니란 것이다. 정확히 말해서 유전인자에 이미 행동지침이 하달되어 전해져 간다는 것이다. 사춘기가 되면 유전적으로 입력(入力)된 계획에 따라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에 따라 본격적인 제2차성증이 뚜렷해지고 또한 성교적 행위를 피할려는 충동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 점은 모든 동물세계의 공통적 요소로서 성의 발달과 정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인간이 동물중의 하나이면서도 통상 동물과는 다른 점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계획된 성발달과정에 따라 생물학적 입장에서만 행동이 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발정기의 동물이 성호르몬에 의해 전적으로 성적행동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사회적 생활과 문화적 배경속에서 얻어진 학습효과에 의한다. 말을 바꾸어 사회화(社會化) 과정이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아이들의 성적 행동(유희)이 그들 부모의 사회(행위)를 통해 좌우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적어도 어린이에게 사회와 문화를 대신하는 것은 오로지 어머니와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결국 성적 본능은 유전되지만 성적 행위는 학습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아이들의 성적 유희가 본능인가 아니면 학습되는 결과인가에 해답을 얻는다면 그 정체 파악이 간단하게 될 것이다. 그 많은 의문에 일일이 대답하지 않아도 대책으로까지 의구심이 모두 풀어지게 되리라는 것이다.

인간의 신체기관은 잉태라는 순간에서 출생을 거쳐 생을 통해 각기 그 기능을 항시 발휘하고 있다. 어느 것이든 정지되어 있거나 활동하지 않는 상태로 있을 수는 없다. 우리 손이 출생이후 계속 그 기능적 능력에서 발전하여 쥐고, 던지고, 만들 수 있게 되듯, 성기기능도 쉬어 정지된 상태로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오줌을 누고, 발기가 되었다 죽었다하는 동안 거기에 감각적 느낌이 동반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자 아이의 성기도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분비액이 어른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질내에 생성된다. 아울러 성기가 어떤 형태에 의해서든 물리적으로 자극될 것이며 그렇게되면 그 성기에 분포된 신경반응으로서의 감각이 느껴지는 것 또한 당연해 질 것이다. 그

것이 만일 좋은 기분이라면 그 감각을 반복해서 체험하려는 것은 역시 당연하다. 이른바 소아의 성기자극행위 즉, 자위행위인 것이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현상이다. 다만 이런 행동보다 더 즐겁고 흥미 있는 다른 일이 없는 한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 나이에 해당된 성기감각 이외의 관심사가 많다. 보이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쫓는 가운데 성기에 집착된 행동은 자연스럽게 고착될 이유가 없어진다. 이것은 적어도 건강한 부모와 안정된 가정에선 언제나 분명한 사실이다. 만일 사정에 따라 아이가 외부적 관심이 차단되어, 그럴때 우연히도 성기적 자극에서 쾌감이 경험되면 그것을 반복하게 된다.

하지만 학습효과가 작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연스런 성기적 감각에 따른 행동에 어머니가 불쾌한 반응을 보이면 아이는 그곳에 강한 집착을 갖게 된다. 그 체험된 감각을 비록 야단치는 입장이긴 해도 강조하는 뜻이 되므로서 감각과 생각과 행동이 그곳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더욱 부모의 성교적 행위나 다른 어른들의 유사한 행동을 보거나 또는 알게 되면 모방에 의한 행동재현이 나타나게 된다. 너는 엄마, 나는 아빠로 모방되거나, 너는 간호원, 나는 의사로 연출되어 성적 유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이의 성적 유희는 그것이 본능적이거나 아니면 학습효과에 의한다. 그것은 곧 아이 자신의 책임이 그 행동양식이 어떤 것이던 없다는 뜻을 말해 준다. 부모없이 유전된 행동이 있을 수 없듯, 또한 부모없이 모방된 행동이 있을 수가 없다. 아이들의 성적 유희는 결국 그 모든 것이 조상과 부모와 사회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그런 행위에 대해 부모가 어떤 태도를 보여할 것인지는 자명해진다. 야단을 칠려면 바로 자신의 행동을 비판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것이 조상의 유전정보에 따른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받아드릴 일 일 것이며 그런 연후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바라는 바를 이해해 주도록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어 스스로 결정할 배경을 넓혀주면 된다. 늘 강조했듯이 솔직하고 정당한 입장에서 성에 대해 부모 스스로가 생각과 태도를 고쳐가지므로서 아이들의 성적 유희를 바라는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게 처리하는 것이다.

성적 유희가 어른의 유사한 행동으로 인식되는 것은 다만 어른들의 입장일뿐 아이들 자신의 생각은 아니다.

(계속)

